

연기금 등 수급 호조... 중소형주 투자펀드 주목

코스닥 갤러리

(下) 투자키워드 '중소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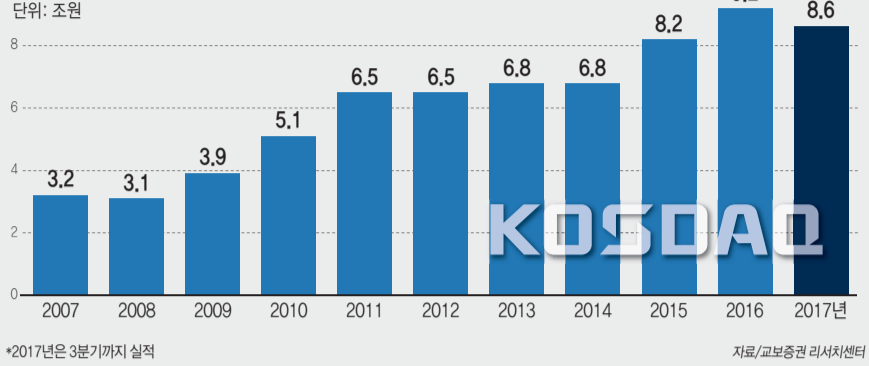
중소형주 펀드 순자산 1591억 ↑
 제약·바이오 산업 실적도 한 몫
 정부 투자 혜택에 우호작용 예상
 평균 40% 수익률 '상반기 적기'

금융투자업계는 중소형주 투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코스닥 띄우기에 대대적으로 나서면서 중소형주 상승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16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액티브형 중소형주 펀드 순자산이 1591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액티브형 주식 일반형에서 7584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과 대조적이다.

인덱스형으로 분류되는 코스닥 ETF(상장지수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더욱 가파르다. 최근 3개월동안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총 5조8606억원의 자금이 몰렸는데 이 중 코스닥 ETF에 1조8870억원이 몰렸다. 이에 전체 순자산은 1조5532억원에서 2조4402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코스닥 연도별 영업이익 추이와 전망



최근 코스닥 시장이 유망한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영향이다.

아울러 기술력만 평가를 받던 제약, 바이오 산업의 실적이 수반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 기준 코스닥 영업이익은 2년 연속 상승했고, 2017년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1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자산운용사, 중소형 펀드 상품 준비 바차
 이에 자산운용사들은 중소형펀드를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심지어 코스닥 종목에만 투자하는 펀드 상품도 나왔다. 기존 중소형펀드에는 코스피 중소형

주도 포함되기 때문에 완전한 코스닥펀드는 없었다. 현대인베스트먼트는 업계 최초로 코스닥에만 투자하는 '코스닥포커스 펀드'를 내놓은 것이다.

김성민 현대인베스트먼트 팀장은 "지난 2013년부터 미국 나스닥(NASDAQ), 일본 토픽스(TOPIX) 등은 가파른 상승을 해왔는데 한국 코스닥만 정체돼 왔다"며 "코스닥 시장에 기관 자금 유입이 기대되기 때문에 성장주 위주로 코스닥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지난 10일 '플러스 텐베거중소형주 펀드'를 선보였다.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중소형주

관련 투자상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코스닥 벤처펀드 조성 시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배정하는 등 여러 혜택을 약속해서다. 또 해당상품 혜택(10%)을 받을 수 있어 투자자금의 유입도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월에는 코스피 232종목, 코스닥 68종목으로 구성된 새로운 벤치마크 지수인 KRX300(가치)이 출시되고, 6월에는 중소형 주식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 코스닥 중소형주지수도 발표한다.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제안이 많다는 평가다.

김형우 한화자산운용 채널컨설팅팀 차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코스닥 시장 수급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코스닥 투자에 각종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와 판매사의 니즈(needs)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까진 코스닥 시장에는 정보기술(IT)과 헬스케어를 제외하면 투자할 만한 종목이 많지 않고, 투기적 자금도 많은 것 같다"면서 "장기적 운용 관점에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중소형주 투자 비중 늘려야...

증권사의 올해 투자 키워드는 '중소형주'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코스닥 지수 고점을 880에서 1070포인트로 상향조정했다. 하나금융투자는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주식시장을 분석한 결과 정부 집권 2년차 상반기 코스닥은 평균 40%의 수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상반기가 코스닥 투자의 적기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의 기관 수급 유인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연속 코스닥시장에서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기관의 자금을 순유입세로 돌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 주식에서 총 127조2000억원(2017년 3분기 기준)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코스닥 투자를 1%포인트(p)만 늘려도 1조원의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정훈석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시장의 상승 가능성에는 이견을 두지 않으면서도 "현재 일부 종목들이 과평가된 상태로,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며 "밸류(가치)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들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슬림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손범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ELS 및 DLS, DLB 총 11종 공모
- 1/19(금)까지 모집
KB증권

KB증권 기초자산 ELS 등 11종 상품 공모

KB증권은 오는 19일까지 3개 기초자산(Nikkei225, HSCEI, S&P500)으로 연 7.6%(세전)의 수익을 제공하는 KB able ELS 354호(3년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를 포함한 원금비보장형 추가연계증권(ELS) 7종,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DLS) 2종, 원금지급형 기타파생결합사채(DLB) 2종 등 총 11종의 상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S&P500지수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탁스50(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KB able ELS 351호(3인덱스 슈퍼리자드 울트라 스텝

운형)는 노 낙인(No Knock-In Barrier) 구조로 3년 만기에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를 주며, 최고 연 3.6%(세전, 리자드 조기상환 시 연 7.2%)의 수익을 제공한다.

S&P500지수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탁스50(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KB able ELS 352호(3인덱스 리자드 울트라 스텝 다운형)는 노 낙인(No Knock-In Barrier) 구조로 3년 만기에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를 주며, 최고 연 4.55%(세전, 리자드 조기상환 시 연 9.1%)의 수익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kmh@

현대산업, 올 1만 6000가구 공급

지나해 보다 물량 소폭 증가
서울 도시재생 사업지 4개 공급

HDC현대산업개발이 올해 1만6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14곳, 1만 6180가구(임대분양포함)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5곳, 1만 5579가구와 비교해 소폭 증가한 물량이다. 특히 전세대란으로 주택수요가 있는 서울과 수도권 공급 물량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달초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수지구교산 아이파크를 시작으로 약 60%에 달하는 물량을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공급한다. 서울 5곳 4489가구와 수도권 4곳 4734가구다.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는 부산, 대전 등 주요 거점 도시에서 5곳 6957가구를 공급한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시재생 사업이 전체 공급 물량의 약 40%로 6861가구 규모다.



수지구교산아이파크

도시재생 사업지는 조합물량 소화로 안정적인 공급성적에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다. 자체사업지로는 1곳 1373가구, 상반기에는 고척 아이파크(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2205가구를 선보인다.

서울 내 도시재생 사업지는 오는 3월 당산 상아현대를 시작으로 장위7구역, 아현2구역, 하반기에는 강남권 사업지인 개나리4차 등 4개 사업장이 공급된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3월에는 전주 바구벌 1구역을 시작으로 부산 온천2구역, 안양 임곡3지구, 부산 거제2구역 등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 분양 예정 단지는 뛰어난 입지와 상품성, 아이파크 브랜드 파워로 견고한 사업실적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하이투자증권 50억 규모 ELS 1종 출시

하이투자증권은 19일 오후 1시까지 추가연계증권(ELS) 1종을 총 5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HI ELS 1368호'는 홍콩항셍중국기업(HSCEI) 지수, 유로스탁스(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로,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85%(18개월, 24개월), 80%(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5.0%(연 5.0%)의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 시 최초 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최초 제시수익률을 지급한다.



단 65%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상 10만원 단위다. /손범지 기자

삼성증권 애널리스트가 CES에 간 까닭은?

전 세계 증시가 강세를 시현했던 지난 주, 5명의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의 중심지 월가가 아닌 세계최대의 가전·IT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소비자가전전시회)를 찾았다.

4차산업혁명의 전령사라 불리는 CES에서 월가보다 한 발 앞서 해외주식 투자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IT담당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해외주식담당 애널리스트까지 이례적으로 박람회에 참석해 선진기업들의 성장 포인트를 현장에서 직접 분석했다.

이는 최근 차량의 전장화와 텔레매틱스화의 가속화로 CES가 가전 뿐 아니라 자동차, 통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

술의 경연장으로 탈바꿈하면서 글로벌 투자의 핵심 아이디어를 발굴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이런 첨단업종의 글로벌 트렌드를 고객들의 해외분산투자전략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애널리스트와 PB 등이 단체로 CES에 참석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 탐방활동과 발빠른 고객전파 덕에 2017년 말 기준 삼성증권 고객이 보유 중인 미국주식 중 CES에서 다루는 IT, 자동차 관련주 비중이 절반에 (46.5%) 이를 만큼 고객투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018년 CES에 참석한 삼성증권



삼성증권 2018CES탐방현장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15일 'CES 2018: 구글의 위협속에 제조업의 희망을 보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한데 이어, 16일에는 '아재의 눈에 비친 혁신의 세상'이란 리포트를 발간하는 등 본격적인 투자정보 전파에 나섰다. /김문호 기자